

## 삼성광주전자 생산 멈췄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이어 16일 건설기계 노조까지 파업에 가세한 데다 민주노총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 산업현장과 건설현장에 심각한 파장을 낳고 있다. <관련기사 3·7면>  
특히 화물연대의 파업에 따라 삼성전자 광주공장이 17일 임시휴업을 결정할 데 이어 건설노조 파업으로 인해 여수출산단 조성공사 현장의 건설기계 가동률이 8%대까지 떨어지는 등 광주·전남지역 각종 건설현장의 공사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 8천여명은 16일 오후 2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조기 정착, 유가급등에 따른 지원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파업찬반 투표를 벌여 중간 집계 결과, 찬성률 70.43%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울촌산단 조성공사 현장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에 건설노조까지 동참하면서 포장장비 반입이 중지돼 건설기계 120대 중 9대만 가동되

### 화물 파업으로 원자재 공급 등 막혀 건설노조 총파업 ... 민노총도 가세

는 등 공사 차질을 빚고 있다. 또 해남 화원·영암 삼포간 도로개설 등 도내 31곳에서 진행중인 각종 도로건설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정상적인 공정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관리 중인 송도국제도시 내 공사현장 9곳 가운데 국제업무지구 기반시설공사와 송도 1공구 중앙대로 건설공사 등 8곳이 덤프트럭 운행 거부로 일부 작업만 진행돼 사실상 공사가 중단됐다.  
광주·전남지방 조합원 250여명이 이날 총파업에 가세함에 따라 울촌산단 조성공사 현장은 이날 건설기계 120여대 중 9대만 운행되는 등 가동률이 8%에 그쳤다.  
지식경제부는 화물연대 파업 4일째인 16일 현재 수출입통관 지연에 따른 차질액이 47억3천만달러에 이

른 것으로 추정했다.  
광주·전남 지역기업들도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  
삼성 광주공장은 야적장이 포화상태에 달하자 17일 하루 생산중단을 결정했으며, 여수국가산단의 휴켄스 화학공장은 이날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화학물질 저장탱크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생산량을 30% 감축하는 등 물류대란에 따른 피해가 계속됐다.  
대우일렉트로닉스 광주공장도 전날 총파업에 가세함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광주·전남지역의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할 방침이다.  
14일 낮 12시부터 이날 낮 12시까지 광주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14TEU로 1일 평균 반출입량의 5천

100TEU의 12%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이르자 정부는 화물연대, 화주, 컨테이너운송업체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아 화물 운송 차질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황 조정하고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쇠고기 촛불시위와 화물연대·건설기계노조의 연쇄파업 등으로 국정 위기상황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윤영기·최경호 기자 penfoot@

### 청원고 무등기를 폼다



16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15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전 서울 청원고와 마산고의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한 청원고 선수들이 최인수 감독을 행가래치며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상보 22면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세계수소에너지대회 광주 유치 확정

광주시가 2014년 제20회 세계수소에너지대회(World Hydrogen Energy Conference)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된 광주가 2천명 이상의 세계 석학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학술회의를 유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9면>  
광주시는 16일 "세계수소에너지협회(IAHE) 이사회가 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수소에너지대회 총회에서 15개국, 이사 20명의 압도적 지지 속에 광주를 2014년 대회 개최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프레젠테이션에서 강력한 유치 의지와 차별화된 전략을 선보여 개최지로 확정됐다.  
세계수소에너지대회는 수소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세계 최대의 학술대회로 1976년부터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2014년 6월15일부터 6일간 열린 광주대회에는 국내외 수소 관련 학자 2천여명과 100여개 관련 업체가 참여할 전망이다.  
광주시는 이 대회가 86여 명의 생산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

## 농산물도 유통대란 '비상'

화물연대가 총 파업에 들어가면서 농산물 유통대란도 현실화되고 있다. 농협사료 원료곡 반입과 제품 반출이 지장을 받아 소·돼지·닭 사육농가들이 사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신선도가 생명인 농산물의 출하 중단·지연에 따라 품질 하락과 부패·변질로 인한 상품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농협전남지역본부와 광주축협 등에 따르면 (주)농협사료 나주공장과 목포공장의 경우 월평균 3만8천t, 2만t의 배합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배합사료는 주재료인 옥수수과 밀껍질·콩껍질 등 10여가지의 부재료로 만들어지며, 원료곡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군산·인천·대불항 등을 통해 들어오는 원료곡 반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

### 출하 중단·지연 ... 상품성 크게 훼손 원료곡 반입 막혀 축산 사료 못구해

료곡 재고물량 마련에 빨간불이 켜졌다. 나주공장은 2~3일분, 목포공장은 5일분에 불과하다.  
박병수 목포공장장은 "옥수수 물량은 10일분으로 다소 여유가 있으나, 부재료 물량이 5일분밖에 없다"면서 "파업이 다음주까지 이어질 경우 생산 중단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제품 반출 길도 막혀 심각한 상태다. 목포공장은 일반화물을 통해 광주·순천·강진 등 거점물류센터에 제품을 반출해오고 있으나, 이 흐름마저 대부분 차단됐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축산농가는 배합사료를 구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축산농가는 한·육우 3만6천471가구(37만마리), 젓소 435가구(3만마리), 돼지 1천250가구(80만마리), 닭 322가구(1천427만마리)에 달한다.  
채소와 과실류 등 농산물도 유통사정은 이와 마찬가지로 심각하다.  
하루 평균 30~40t 유통되는 광양매실도 택배물량이 10t 아래로 떨어졌다. 매실 생과는 저장성이 24시간에 불과해 물류가 지연될 경우 상품성이 떨어져 13일부터 주문을 받지 않고 있다. 서울 등 전국 대도시로 과채류를 수출할 경우 대형화물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김종훈 대표 귀국 연기 '3차 협상'

오늘 쇠고기 자율규제 정부 보증 논의  
한국과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3차 협상을 미국측 제안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16일(현지 시간) 개최하기로 했다고 주미 한국대사관 고위관계자가 15일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이날 저녁 워싱턴을 출발, 뉴욕을 거쳐 귀국할 예정이었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부장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대표단은 귀국을 연기했다.  
주미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대표단이 워싱턴을 출발, 뉴욕으로 향하던 중 미국측에서 장관급 협상을 며칠 더 하자고 요청이 와서 16일부터 워싱턴에서 협상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 측의 '협상 계속 제안'에 따라 김 본부장을 비롯한 정부 대표단은 이날 밤 뉴욕에서 하룻밤 묵은 뒤 다시 워싱턴으로 와서,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단장으로 한 미국 정부측과 협상할 예정이다.  
새 협의에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한국 수출을 통제하는 민간업자간 자율규제에 정부가 개입(보증)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함평다이너스티컨트리클럽이  
귀하의 품위를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함평다이너스티컨트리클럽  
주소: 함평읍 남부리 1-1 (함평읍 남부리 1-1)  
전화: 062-330-0344